

위험 무릅쓰고 생명 구한 시민영웅 '119 의인상'

차길환·임주현·강철우·박경수씨 등 4명

진도서 학생 3명 포함 4명 구조 등

바다에 빠져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구한 시민 영웅 4명이 '119의인상'을 받았다.

소방청(청장 신영우)은 최근 차길환(62), 강철우(57), 박경수(47), 임주현(48)씨를 제4회 119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차씨는 지난 8월 10일 가족 및 지인들과 전남 진도군 솔비치리조트 앞 해변가를 산책하던 중 10대 남학생 3명이 바다로 떠밀려가는 걸 발견했다. 이를 구조하려던 학생의 어머니까지 물살에 휩쓸리는 상황이었다.

차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근처에 있던 4m 길이의 밧줄을 던져 학생 2명을 먼저 구했다. 이어 자신의 몸에 다른 밧줄을 묶고 지인들에게 잡게 한 뒤, 60여m를 헤엄쳐 다른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까지 구조했다.



차길환

임주현

강철우

박경수

임씨와 강씨, 박씨는 지난 10월 13일 제주도 표선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8세-6세 남매를 발견하고 50여m를 헤엄쳐 구조했다.

임씨는 표선해수욕장의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곧장 바다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했다. 강씨는 지난 2016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고등학교생 1명을 구한 적 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부산 해수욕장에서 중학생 1명을, 2014년에는 밀양 계곡에서 중학생 2명을 구했다.

신영우 소방청장은 우리 사회가 각박해졌다고도 하지만 사실 곳곳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의인들이 많다고 말하고 앞으로 의인의 정신이 빛날 수 있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재난·사고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한 국민을 선정해 2018년부터 '119의인상'을 주고 있다. 제4회 119의인상 수여식은 13일 소방청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평동농협, 60세 이상 농업인 무료 검안·돌보기 지원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강형구·왼쪽)와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은 최근 광산구 옥동 본점에서 60세 이상 농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하며 무료 검안과 돌보기 지원 등을 펼쳤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송원대학교, 하나금융나눔재단 장학금 전달식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9일 대학 총장실에서 하나은행 광주지점 최홍길 지점장과 송원대 본부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금융나눔재단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송원대 제공>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신혜연)가 최근 청년도움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64명에게 월경교육을 진행하고 월경용품 1만 600개를 지원했다.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제공>

동강대 장세은씨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서 브론즈상

전남대 개교 68주년 맞아 개최

"대학에 입학하고 국제교류원 프로그램 홍보 설명회를 들었는데 흥미를 느껴 여러 외국어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가 재미로 바뀌고 재미가 자신감이 돼 외부 경연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동강대학교 보건의료관리과 장세은(2년)씨가 광주·전남지역 대학·대학원생들이 실력을 겨룬 영어 콘테스트에서 당당히 상위권에 입상했다.

장씨는 최근 '2020 전남대학교 English Essay Contest'에서 4등상인 'Bronze Prize'를 수상했다. 이 콘테스트는 전남대 신문방송사에서 '전남대학교 개교 68주년 및 Chonnam Tribune 창간 52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대학(원)생들의 영어 실력 발휘 및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장씨는 "경연대회 작문 수상자들을 보니 영어전공자, 대학원생 등 다들 실력자들이라서 기대 안하고 참가하는데 의의를 뒀다"며 "이런 상은 그동안 공부한 결



실을 맺은 것 같아서 희망이 더 생기고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고 말했다.

장씨는 "솔직히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서 입학 후 국제교류원을 통해 회화, 토익 등 외국어 공부를 꾸준히 했다"며 "지난해 국제교류원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5주의 연수 기간 짬을 내 미국도 방문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외국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명문대에 다니는 제 중학교 친구가 '우리 학교는 개인이 잘 하니까 학교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하지만 동강대는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 너무 부럽다'고 했다"며 "동강대 학생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기회를 접하고 실력도 키워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80년대 포크록 부흥 이끈

'따로 또 같이' 나동민 별세



1980년대 포크 그룹 '따로 또 같이'로 활동한 가수 겸 작곡가 나동민이 지난 5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지병으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64세.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강인원을 만나게 돼 함께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1979년 강인원을 비롯해 이주원, 전인권과 포크 그룹 '따로 또 같이'로 1집 '노래모음 하나'를 냈다.

포크와 록의 결합을 보여준 '따로 또 같이'는 1988년까지 활동하는 동안 1970년대 포크 문화와 1980년대 록 문화의 가교 구실을 했다. 들국화의 모체가 된 그룹이라는 평가도 있다.

나동민은 '맘도는 얼굴', '연애가 그날', '조용히 들어요', '잠 못 이루는 이밤을'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켰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활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카이로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명만 빌리지(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전교톱10(재)	00 12 MBC 뉴스 20 백파더 편집판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토크톡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50 안녕 우리말(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뽀뽀뽀 친구친구 50 2시 뉴스 외전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한전 음악콩쿠르 대상선정 연주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45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카이로스(재)	00 SBS 오 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고향견문록 스페셜 사람잇수다
[6]	00 6시 내고향	15 2020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두산:KT)	15 K-뉴딜 성공 전략 토론회 -한국판 뉴딜! 대전환의 시대를 열다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더불어 음악의 숲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명만 빌리지	20 카이로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00 펀트하우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100분 토론	15 불타는 청춘
[12]	10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 구례 수해 30일의 기록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활송 토크!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곰 브라더스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7:45 꼬마하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크프라이미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축하와 아상의 땅 -변방의 겨울, 연해주와 쿠릴열도>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09:00 보로로 동화나라	16:15 로빈 후드	<가을이 한 그릇 2부 손꼽 맛 보실래요>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30 명랑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생활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	17:20 마사와 곰	23:5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윙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0일 (음 9월 25일 丁巳) ☎ 010-9790-8237

<p>36년생 인정받거나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48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60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72년생 계획이란 구체적인 내용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84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96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3, 66</p>	<p>42년생 결과적으로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54년생 공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66년생 막연하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78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90년생 운운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 할 수 있다. 02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77</p>
<p>37년생 신중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49년생 원인부터 따져 봐야 한다. 61년생 한 가지 일에 다른 일이 겹쳐서 매우 복잡 다단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73년생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할만 하다. 85년생 폭넓은 시각과 이해심이 길성을 부러리라. 97년생 곧 강풍이 불어 닥칠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행운의 숫자 : 49, 96</p>	<p>31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붙잡고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43년생 별로다. 55년생 지금 땅장의 이득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으로 이어지겠다. 67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머지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79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91년생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39, 79</p>
<p>38년생 영장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50년생 순발력을 요하는 때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 62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74년생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86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고 있다. 98년생 천군만마를 얻음과 같이 흡족하리라. 행운의 숫자 : 77, 61</p>	<p>32년생 잘 풀려 나가는 양상이니라. 44년생 염려할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56년생 구관이 평관이라 했으니 새로 생기는 것보다 기존의 것이 훨씬 낫다. 68년생 방도와 해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따른다. 80년생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판세이니라. 92년생 기본을 상하게 하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1, 73</p>
<p>39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51년생 다방면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63년생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75년생 타산지식의 격이다. 87년생 절제대로 해야 한다. 99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20, 56</p>	<p>33년생 의지가 약하다면 재물이 나갈 수도 있다. 45년생 과잉 확신은 엄청난 오류를 낳기에 걸경으로 이어지겠다. 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69년생 배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81년생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감정을 엄격히 구분하라. 93년생 나가는 것은 차치하고 들어오는 것에 신경 써라. 행운의 숫자 : 34, 50</p>
<p>40년생 시간적 공간적 요소가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한다. 52년생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림잡아도 지장이 없다. 64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를 또한 훌륭한 법이다. 76년생 생 상태의 속사정은 따로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88년생 미연에 조치해 둔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00년생 안팎까지 매끄럽게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22, 90</p>	<p>34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46년생 가다 말고 다시 되돌아 올 수도 있겠다. 58년생 상대를 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되리라. 70년생 직접 찾아가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82년생 형국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94년생 노출된 외관까지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44, 99</p>
<p>41년생 함께하는 이와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53년생 어제보다는 훨씬 진전된 하루가 될 것이다. 65년생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애를 먹는 모양새가 전개 된다. 77년생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뜻 깊은 날이다. 89년생 지금 실행해 놓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01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71</p>	<p>35년생 활로가 개척 될 것이다. 47년생 지루하더라도 계속 지켜봐야만 한다. 59년생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행해야만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다. 71년생 때를수록 능률적이다. 83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95년생 드디어 행운이 다가오는 장면이다. 행운의 숫자 : 33, 75</p>